

‘해방3년’ 정치역정의 치밀한 이해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낸 서중석교수

‘해방공간’의 역사적 소용돌이로부터 통거져 나온 수많은 파편들은 오늘 우리에게 ‘분단상황’이라는 긴장된 현실을 안겨주었다. 현실 속에 총총히 박힌 그 역사의 파편을 끄집어내기 위한 학계의 작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출간된 서중석교수(성균관대 사학과)의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역사비평사)는 그 일단을 예증케 하는 새로운 저서로 관심끌기에 충분하다.

해방 3년사의 총체적 이해

서교수의 저서에 학계가 주목하는 바는 현대사 분야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이라는 점이 앞서 해방 이후 급박하게 전개된 정치사를 역사의 전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한 첫 역사서란 점에 있다. 더욱이 이 연구서는 총 600여쪽의 방대한 분량이 말하듯 해방 3년의 공간을 포괄하면서 일제시기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분단으로 연결된 역사과정을 하나의 연결고리에 의해 객관적 시각과 정연한 논리로 풀어보임으로써 연구시야의 전환을 이룬 점에서도 의의가 깊다.

“일제 때 우리민족사 최대의 과제가 민족해방이었듯이 해방후엔 통일된 독립국가건설이 최대과제였습니다. 해방 이후 분단으로 가는 과정중 한국 내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즉 한국인이 외세에 의해 변질돼가는 조건 속에서 통일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각각의 주요 정치세력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연구의 핵심이지요. 한반도 분단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체인 우리 민족의 대응자세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해방후 현대사 논의가 한반도 분단에 미친 미·소 등 외세의 정책에 집중돼 있음에 비해 서교수의 저서가 ‘민족통일전선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식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저서는 건준에서부터 남북협상에 이르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전과정과 좌우대립의 역정을 치밀히 고찰하는 한편, 정부수립 방안을 둘러싼 정치세력의 노선전개를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이 연구서 바탕에 스민 서교수의 역사 의식에 길지 않은 세월 속에 품어진 굴곡 많은 체험이 큰 자리로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67년 서울대 사학과에 입학한 후 84년 국사학과로 졸업하기까지 16년의 세월은 서교수로 하여금 삼선개헌반대와 유신철폐,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생생한 체

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키워진 역사와 현실의 간극을 학문의 세계로 전이시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개인사의 현대사로의 편입이었다. 거기에 월간 「신동아」 기자로 10여 년간 활동한 세월 또한 ‘현대사’에 집중하는 서교수의 학문세계에 현실감각을 각인시켰을 법하다.

해방3년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도 이미 대학교 때 접한 조순승씨의 역저 「세계정치 속의 한국」이란 책에서 비롯되는데, 카이로선언부터 1947년까지 다룬 이 책을 읽으면서 “신탁통치에 대한 국내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설명이다. 때문에 이 책의 방대한 자료수집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일제시기와 해방후의 자료들은 조선총독부 미군정간행물을 포함해서 신문·잡지의 마이크로필름, 각종 기록자료집을 비롯해 연구저서와 논문을 총망라한 참고문헌으로 이 저서의 탄탄한 주춧돌인 셈이다. 특히 서교수는 「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의사록」 등 중요회의 의사록과 미소공동위원회, 남북협상관계 자료집이 수록돼 있는 「한국현대사자료총서」(둘베개) 같은 경우 중요한 자료구실을 했음도 밝힌다.

“역사는 자료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만큼 자료 자체의 객관적 인식은 절대적이지요. 풍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좋은 자료를 이용하지도 않다니 하는 분노에 가까운 안타까움과, 내가 최초로 이용한 자료로 논문을 쓸 수 있다는 데 대한 안도감이 이중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소련정부측 기록자료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북한관계자료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을 제외하곤 국내 모든 자료를 거의 망라한 이 저서는 그런 점에서 과학적 실증사학의 범례로서도 본보기상을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책의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이란 부제로 짐작되듯 분단고착의 역사를 민족통일전선운동과 좌우익의 대립적 노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로 천착한 데에 있다.

즉, 민족통일전선운동과 중경임정추대운동,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노선에 대한 일제시기의 고찰과 함께 해방후 그 각각의 세력이 표방한 이념과 정치과정을 세가지 정부수립방안과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상호유기적으로 변화하였는지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일제 식민통치와 그 시기 민족문제, 계급문제와의 긴밀한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해방이후에 표출된 통일전

선 좌파와 중도우파,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한독당계와 한민당·이승만계 등 정치세력의 노선전개를 확연히 검토하고 있다.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소를 전혀 배제할 수 없던 국제적 현실이었던 상황에서 모스크바3상회의 결의를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민족적 진보세력이 규합, 미소에 자주·우호적 관계를 견지하면서 독립국가를 수립한 후 외세를 축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내 극단적 우익세력의 비이성적인 반탁운동 전개로 독립국가건설은 실패했고 오늘과 같은 좌우대립의 극심한 민족분열의 양상을 낳았던 거지요.”

좌우익의 편향된 시각 극복

따라서 서교수는 애국적 감성만을 중시한 채 국제현실을 도외시하여 중경임시정부를 완강히 주장할 김구세력의 노선도 결코 합리적이지 못한 대응태도였다고 본다. 이같은 서교수의 좌우익에 대한 평형성은 9월 총파업, 10월 항쟁 등으로 폭발한 민중운동과 좌익내부의 갈등 그리고 미군정과 친일경찰하에 자행된 극우테러의 정치효과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유지된다.

기존시각이 지녔던 편협성의 극복은 예컨대 여운형 등의 통일전선좌파와 박헌영노선의 좌익정부수립론자간의 대립을 ‘좌익’의 한 테두리 안에 다룰 수 없음을 밝힌다거나, 우익내부의 김규식 등 좌우연합노선과 중경임정추대를



서중석교수

우선시했던 김구세력과의 확연한 변별성을 밝힘으로써 균등하게 이뤄진다.

“아마도 좌우익의 전통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 책이 기본나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좌우익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민족통일’의 최대과제를 앞에 둔 정치노선으로서의 비판도 강렬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합리적 입장에서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 현대사를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서교수가 해야 할 연구는 당연히 1920년대의 본격적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와 민족자주를 이루려던 4·19, 5·16 시기의 역사로 확산된다. 기존 연구가 주로 4·19 등의 당위성을 입증한 정신사학적 연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서교수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실증사학적 방법으로 역사적 성격을 구명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것은 곧 서교수에 있어서 현대사연구가 통일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같은 연장선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교수는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보다도 현대사교육이 절실하면서도 가장 불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현대사연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해방공간의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 않기 위해선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기만 했던 현대사를 바라보는 일에 결코 게으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지원 기자